

*명동대성당

한미희 수산나

명동대성당은 1882년 최초의 본당으로 설정된 서울대교구의 주교좌성당이며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에요.

조선시대 한성 남부 명례방인 이곳에서 1784년 천주교 신앙공동체인 명례방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맺어진 후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생각하신 제 7대 교구장 블랑주교님께서 명례방언덕의 땅을 사셨어요.

블랑주교님은 먼저 종현서당을 만드시어 예비신학생을 교육시키고 성당건축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조선 왕들의 초상화가 있는 영희전을 내려다본다하여 성당을 짓지 못하게 해서 성당건축이 늦어졌어요.

그러는 동안 신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남대문 밖에 문밖 본당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곳이 중립동약현성당 이에요.

성당을 짓는 일이 잘 해결되자 먼저 고아원과 주교관을 짓고 이어서 성당건축을 시작하였어요.

코스트 신부님께서 설계하시고 공사를 감독하시다가 선종하셔서 프와넬 신부님께서 공사를 마치셨어요.

성당건물의 벽돌은 중국 청나라에서 기술자들을 데려다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든 흙은 용산 와고개의 것이고 이곳은 조선시대때 기와를 만들던 곳이며 박해때 순교하신 분들을 임시로 묻었던 곳이라 이 벽돌에는 순교자의 열이 배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명동성당은 1898년 5월 29일 성령강림대축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어요.

순수 고딕양식인 명동성당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라틴십자가형으로 국가사적 제 258호로 지정되었어요.

지상에는 대성전 지하에는 지하성당과 성해실, 고해소가 있어요.

대성전의 제대 바로 아래가 성해실인데 이곳에는 성인 다섯 분(기해박해: 앙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최경환 프란치스코, 김성우 안토니오)과 순교자(기해박해: 이 에메렌시아와 무명 순교자, 병인박해: 프티니콜라 신부, 프르티에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지하성당에서는 매일 성지미사가 봉헌되며 고해를 할 수 있어요.

*성당내부 : 실물보고 설명